

##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의 적응방안

박 옥 임 (순천대 소비자·가족이동학과 교수)

### 1. 서 론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매년 많은 농촌의 노동력, 즉 경제활동 인구가 도시로 유출되었다. 이에 따라 농업인구의 비중이 50%수준에서 20%수준으로 줄어드는 데 소요된 기간이 덴마크 102년, 프랑스 90년, 미국 60년, 일본 40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19년에 불과해 농업의 구조 정책을 수반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촌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이 나타났다. 즉 이러한 농업노동인구의 이동으로 인한 농업인구의 여성화·노령화는 농번기 농업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했고, 농촌노임을 급격히 높이게 된 것이다. 또한 농촌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은 가정생활, 소비생활 그리고 농업노동력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개발활동 참여, 정치적인 역할의 확대, 문화보존 및 창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노동력 중심의 영세소농 형태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의 농업생산구조상 고용노동을 축소시키고, 가족노동을 강화시켰으며, 특히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에 대한 농촌사회 내부의 요구를 증가시켰다.

한편 농촌여성이 농가경제의 농업노동에 참여함에 따라 농가소득을 획득하는 경제주체이며, 국가경제 전체로 볼 때는 농업에 종사하는 취업자로서 생산활동에 종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농가주부나 농사 보조자로 인식되어져 왔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경제활동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경제활동 가치평가측면에서는 대부분 제외되었으며, 노동참여로 인한 역할 증대에 상응하는 지위 향상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지만, 도시화·산업화의 사회변동하에서 계속되는 농촌 이농현상의 문제점은 UR협상의 타결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에 의해 더욱 그 심각성이 가중되고 있다. 농산물 시장의

개방에 대처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영세 가족농업에서 대규모 기업농업으로의 전환을 요구함으로써 농어민의 자생력이 강구되기 시작하였다 (민말순, 1994).

따라서 농촌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정으로부터 남녀평등의 사상을 심어주고 여성도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회의식을 깨우치는 가정교육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교육목표나 교과내용, 교육활동에 포함시킴으로서 전국민이 사회발전에 동참해야 할 당위성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이미 농촌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 교육을 강화하여 농촌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21세기를 향하여 농가, 농촌의 특성을 살려 보람 있고 지역사회에 뿌리 내릴 수 있는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농촌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촌여성의 적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농촌사회의 변화과정과 여성문제

### 가. 1960년대 이전의 농촌과 여성

1945년 8월 15일 일제 식민지를 벗어난 우리나라는 곧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3년간의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미군정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넘기기 위해 긴급구호원조를 시작하였고, 1949년에는 농지개혁법안을 공포하고 자작농 창출을 시도하였으나 곧이어 터진 6.25전쟁의 영향과 농지 개혁의 철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소작농은 다시 늘어났고 농민생활은 더욱 궁핍해졌다. 1950년대 이후 미국 잉여농산물의 다량 도입은 곡가의 하락 원인이 되어 농가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김주숙, 1994). 농가의 대부분이 극도로 빈곤했던 점, 가부장제의 폐단으로 인한 남존여비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농촌여성이 처해있었던 상황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한편 1960년대초 5.16 직후 농어촌 고리채 정리, 농협법의 정리 등 농촌의 발전을 위한 시책이 마련되는 듯했으나 결과적으로 농업희생정책을 채택하였다.

1962년에 시작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추진된 수출지향형 공업화와 산업화 및 도시화에 따른 이농의 증가는 도시노동시장에 초과수요를 유발하였으며, 이에 따라 1960년대 중반 이후 수출공산품이 대개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단순가공형태의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또한 노동의 형태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은 이른바 노동집약적 산업분야(섬유 등)였기 때문에 이 시기 경공업 중심의 수출유인정책은 자본축적의 기반인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한 기초로서 저곡가를 강력히 요구하게 유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자립경제의 기반이 구축되었고, 국민생활의 일반수준이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되었으며, 기아와 질병 등 기본적 문제해결의 여건이 조성되었다(강은주, 1998). 반면 농촌사회에서는 이미 농업노동력의 노령화 및 여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1970년대의 미국증산정책에서 여성노동력은 매우 중요시 되었다(김주숙, 1994).

#### 나. 1970년대의 농촌과 여성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른바 노동임금의 상승으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1973년 이후에는 선진 자본주의의 과잉자본수출 필요성에 따라 중화학공업에의 투자가 증대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중화학 공업이 한국 자본주의의 가장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에의 집중 투자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산업사회로서의 변모된 모습은 보다 편리하고 개성적인 삶의 형태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전통적 가치의 상실과 상대적 박탈감의 증대로 인한 사회적 긴장과 혼동의 증대를 초래하였다(강은주, 1998).

한편 농촌인구의 이동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는데, 1970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가의 전형적 인구구조인 피라미드형 구조로서 농촌인구의 43.5%를 차지하던 13세 이하의 유년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1990년에는 20.6%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는 자녀를 동반한 청장년층 가구주의 도시 유출에서 기인된 것이었지만, 60세 이상의 인구는 1970년에는 7.9%에 지나지

않았으나 평균수명의 연장과 농촌의 청장년 인구 및 유년인구의 감소로 1990년에는 17.8%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50대 연령층의 비율이 높아졌는데, 50세이상의 연령층이 농촌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1988년에는 32.9%에서 5년이 지난 1993년에는 42%로 상승하여 농촌인구의 노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민말순, 1994).

농촌에서는 개방농정을 추진하였는데, 개방농정은 첫째, 영세·소농 구조의 지속과 농업구조개선 둘째, 미국 위주의 농업경영 및 생산구조 셋째, 농민의 적극적인 발전노력 부족과 농업의 성장부진으로 파악하면서, 농업정책의 급진적인 방향전환을 모색하였다. 결과적으로 개방농정은 가격이 낮은 외국 농산물을 수입하고 저곡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고, 도시노동자 생계비 인하를 통해 저임금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김주숙, 1994).

이상의 개방농정은 복합영농을 실시하면서 여성의 노동을 강화시키는 한편 고통도 증대시켰다. 즉 수도작 뿐만 아니라 채소, 과수 및 축산 등으로 작목을 확대하였고, 이들 작목을 농사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을 많이 필요로 했다. 이처럼 복합 영농을 하는 농가의 여성들은 가구주에 못지 않게 때로는 가구주보다 더 많이 농업노동을 하였을 것이다. 반면 이순전(1977)은 농촌여성이 가사의 부담으로 사회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적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농촌여성의 농업노동 참여가 1980년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었음을 추측케 한다.

#### 다. 1980년대의 농촌과 여성

1984년부터 농촌공업육성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간 균형개발을 추진하였으나, 1980년대 초반의 소값 파동 및 그 뒤 계속된 고추, 담배 등 작물의 연쇄적인 가격파동 때문에 농가 특히 복합영농가의 부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였다. 이처럼 복합영농가의 투자, 가격 파동, 부채의 증가로의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여성노동량도 최대 한도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합영농의 실패를 보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노동을 하거나 농외취업을 시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여성들이 앞장서서 하게 됨으로써 여성들의 농업 노동량이 급증하여 건강이 악화되는 사례가 속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주숙(1981, 1982, 1983, 1984, 1986, 1987, 1988, 1990)을 비롯한 1980년대 대부분의 연구는 농촌여성의 과중한 업무와 지위와의 불일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을 표명하였다. 특히 김주숙은 농촌여성의 농업참여 증대가 지위 향상을 가져올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농업구조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여성 스스로가 이중역할(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남존여비의 가치관 속에서 자신들의 의무인양 체념하는 것도 지위 향상에 저해요인으로 인식하면서 농촌여성의 발전은 경제, 사회, 문화 등 다각적 측면의 발전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반면 윤순영(1983)은 여성노동에 대한 전통적이고 문화적인 정의는 보충적인 노동이라는 전제하에서 남성과 여성노동의 차이점의 원인을 낮은 시장가치와 기계화로 인한 남성과 여성노동의 질적인 격차가 임금격차를 강화시킴으로써 여성노동이 더욱 낮게 평가되었다고 지적하였다.

## 라. 1990년대의 농촌과 여성

WTO 체제의 출범으로 국제경쟁력이 약화된 우리나라 농업은 존립의 위협마저 느끼게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은 농촌, 농민의 경제·사회적 상황은 농민들이 농촌에 대한 매력을 상실하여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게 됨으로써 농촌사회는 물론 도시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농업과 농촌사회는 크게 변화하였으며 세계 여러나라와 경쟁을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업과 농촌은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개발되어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와 있다. 또한 1997년 11월 우리나라는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경제의 급속한 활력 감퇴와 경쟁력의 저하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강은주, 1998).

1990년대 농촌여성의 역할은 농외취업 현상의 증가와 기계화에 따른 여성노동의 감소효과를 가져왔고, 새로운 생산조직이나 기계화가 남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으나, 실제 농촌 현실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이 오히려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김주희(1991)의 연구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즉, 산마을은 농업에 있어 기계화가 진전되고 있으나 여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농기구는 여전히 "호미" "낫" 등 농기계 사용 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으며 농기계는 주로 남성들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농촌여성들은 수월하고 일당도 비싸며, 출근과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이유로 농외활동을 선호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높은 경제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였다. 결국 여성의 농외활동은 경제적 측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가치의 평가를 받지 못하고 단순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 농촌사회의 구조와 여성문제

#### 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여성문제

##### 첫째,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인구격차

1965년의 총 가구 중 농가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본은 23.5%, 대만은 37.5%, 한국은 51.7%로서 각국간의 차이가 매우 컸으나 1990년에는 일본은 9.8%, 대만은 14.6%, 한국은 15.6%로써 3국의 농가 구성 비율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었다(민말순, 1994). 이는 한국의 산업화가 단기간 내에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농촌이 개발에서 소외되어 야기된 도·농간의 심한 격차로 인하여 농가가 급속하게 감소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 둘째, 마을공동체의 해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은 농촌사회의 장기변화에 관한 보고서에서 영농조합·계모임이 85년에서 97년 사이에 40% 가량 감소했음을 보고하고 있다(김경미 외 2인, 1999, 재인용). 이처럼 농촌 마을공동체가 해체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는 마을 대신 면이나 군 등 보다 큰 지역을 단위로 재편되고 있으며, 다양한 배경을 지닌 주민들이 생활기능을 중심으로 보다 큰 지역 차원에서 연계망(network)을 형성하는 생활터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 셋째, 여성의 다중역할

여성 농업노동의 증가는 여성농민들의 다중 역할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생산의 주체자로서 농사일과 가사일을 병행하는 문제는 단순히 특정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이중노동문제 특히 유아기 자녀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 즉 보육시설이 갖추어져있지 않고, 집에는 달리 아이를 돌보아 줄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애를 업고 일을 하든지 애를 혼자 집에 놓아둔 채 하우스와 집을 오가면서 불안한 심리상태에서 일해야 한다.

### 넷째, 농촌자녀의 교육현황

농촌의 자녀교육 환경은 자연과 벗함으로써 정서적인 면에서 바람직하고 순수한 면이 많다는 점과 할아버지 할머니를 비롯한 대가족제도 아래에서 사회성 발달, 정서적 발달, 언어발달 등의 장점도 많이 있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이 도시위주로 편성되어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소외되고 있다. 즉, "소규모학교 통폐합"(조성철, 한국교육신문, 1999년 6월 21일) 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농민들은 생업과 자녀교육 중 하나는 포기하여야 하는 선택의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농촌학교는 도시학교에 비하여 영세하고 충분한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도시위주의 교육운영으로 학교시설, 행정지원, 교원배치에서 농촌이 도시에 비해 불리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향학열 부모의 교육열, 가정 및 사회의 교육적 환경에서도 농촌이 도시에 비해 불리하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농촌을 떠나거나 혹은 자녀만을 대도시로 보내 교육시키는 형태가 증가하면서, 농촌여성들은 부모의 관리범위에서 벗어난 자녀들의 학교생활이나 자취·하숙생활에 대하여 불안한 마음으로 생활하고 있다.

### 다섯째, 도시 저급문화의 무분별한 유입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도시의 저급문화가 농촌으로까지 아무런 여과과정 없이 무분별하게 침투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장과 더불어 자가용 보유 비율이 증가하면서 도시 교외를 찾는 시민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도시 근교에는 많은 대중음식점과 숙박시설이 자리하게 되었다. 한 일간지에서는 "모텔면 가든리"라고 표현하였을 만큼 농촌에서의 도시 향락문화 피폐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편의시설은 농민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이 그들의 안락

하고 편안한 전원생활을 수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나. 소비·경제적 측면에서의 여성문제

##### 첫째, 농업의 영세농화와 여성의 역할 증대

농업의 영세소농적 특성, 외부자본의 침투에 의한 소작화 등으로 생산성의 저하와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농촌여성은 빈곤으로 인한 문제와 더불어 농업인구의 도시유출에 의해 과다한 농업노동의 부담을 지고 있다. 또한 복합영농의 실패를 보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임노동을 하거나 농외취업을 시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여성들이 앞장서서 하게 됨으로써 여성의 부담은 더욱 가중되었다.

예를 들어보면, 농가인구의 감소에 의한 호당 경지면적의 증가, 작목의 다양화, 농가당 영농종사자수의 감소 등이며, 실제 가족농업노동시간만 보아도 그간 추진되었던 기계화와 생력화(省力化)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78년에 연간 남자가 834시간 여자가 473시간에서, '87년에는 남자가 857시간인 반면 여자는 619시간으로서 31%증가하였다(김창호, 1990)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둘째, 농촌여성의 소비생활

마을단위의 농협공판장이나 슈퍼마켓의 농촌 진출로 간단한 물건을 구입하기에는 불편이 없으나 세탁기, 냉장고와 같은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정보의 정확성을 분별할 수 있는 소비자의 상품비교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구매행동에 있어서도 도시 여성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경험한다.

농촌 여성의 소비자 불평행동에 관하여 조사한 고정숙·최현자(1997)의 연구결과 불만 및 피해제품으로는 가전제품(35.3%)이, 불만 및 피해사유에 대해서는 품질불량(51.3%)이 가장 많았고, AS 미흡(20.6%), 가격비쌈(12.6%)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셋째, 농가소득의 불안정성

농가소득은 매월 일정금액을 수납하는 안정된 형태가 아니므로 예상수입과 예상지출에 따른 합리적이고 규모있는 가계관리가 불가능하다. 이러한 결과는



농가유형별로 농가의 소득에 관하여 연구한 김인숙·최인숙(1990)의 연구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농가는 소득과 지출구조가 농가유형별로 그 시기와 크기가 다양하므로, 소득이 들어오는 시기에 합리적인 관리와 규모있는 지출관리가 요망된다고 하였다. 특히 농업부수입과 농업소득의 개념이 혼합되어 있고, 실제 가게에서도 금전관리를 할 때에 농업경영비와 가게사용 가능액을 혼합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농가의 규모있고 합리적인 가게관리에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 농업인에게 규모있는 가게관리와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실천적인 소비자 재무관리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 **넷째, 농가의 부채비율 증가**

박옥임(1991)은 한국 농촌가정의 경제구조가 경업농으로 진전되고, 농업소득 및 농외소득 중 일부는 농업생산에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은 농가의 부채 상환 및 자녀 교육비에 충당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수입개방의 자유화가 농업생산기반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수입농산물에 의존하게되면서 생산농가는 타격을 받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농촌가정의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농가는 탈농 혹은 빈농의 상태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비단 농촌의 문제로만 국한시킬 수 없는 이유는 국가의 식량자급이 낮아지면 해외시장에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고, 국제 농산물 가격의 등락과 수입 농산물의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 **다. 여성·가족적 측면에서의 여성문제**

#### **첫째, 변형된 가부장제**

부계혈통중심의 가족구조에서 대다수 농촌부모는 자녀에게 농업을 평생의 직업으로 물려줄 생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적인 차원에서 자녀를 지도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부자간, 부부간, 고부간의 관계에서의 위계적인 요소를 과거보다 상당히 약화시켰으나, 새로운 신가부장권내에서도 아들이 갖고있는 중요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즉 농촌의 남성중심적인

사회관계는 여성들의 경제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회참여의 길을 거의 차단하고 있다. 이는 농협의 조합원 자격이 토지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가구주 남편으로 되어있으며, 마을의 공식 모임인 마을 총회에 남성들이 주로 참석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이런 남편의 대표권에 대한 불합리함을 지적하는 여성은 극히 적다.

### **둘째, 농촌여성의 농외소득활동**

여성의 농외활동은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 외에, 농촌여성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현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촌여성의 지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농촌여성의 농외소득 활동은 가사노동의 연장으로 인식되어 가내부업이나 단순노동활동으로 낮춰 사회적으로 고립시킴으로써 정당한 대가나 처우는 물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농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촌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적인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 **셋째, 가사노동의 분담**

과거에 비해 남편이 가사일을 도와주는 비율이 증가하였으나 식사준비, 설거지, 빨래, 장보기와 같은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여전히 주부의 전담영역이 되고 있다(90%이상). 그밖에 아이보기, 자녀훈육을 비롯한 기타 가사노동영역은 가족이 분담하고 있으나 그 분담비율은 극히 적고 미미한 실정이다. 이는 농촌의 뿌리깊은 "성역할 고정관념"이 쉽게 변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의식전환을 구심점으로 앞으로는 농촌 가정에서도 남성들이 가사노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 **넷째, 자녀와의 관계**

농촌가족에서 자녀는 부모의 희망임과 동시에 심각하게 겪고 있는 좌절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반면 자녀들은 그들을 위해 땀흘려 일하는 부모의 노고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성취동기와 야망을 실현시켜줄 수 없는 자원부족이나 낮은 지적 수준에 대한 괴리감도 갖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 가족에서도 쉽게 발견되는 측면이지만 농촌가족에서는 부모 스스로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에는 농촌지역의 자녀들 결혼에 관하여 연구한 조옥라(1990)의 연구에 잘 나타나 있다. 즉 자녀들이 대부분 외지에 나갔다가 자신들의 배우자를 선정하여 부모에게는 일종의 통고를 통하여 형식적 허락을 맡아 결혼식을 올리는 반면 부모는 자녀들의 결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고 혼례비용만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섯째, 노후생활대책**

자녀를 위하여 평생 농사일을 해온 노인들에게 가족관계가 노후대책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특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영세농의 경우 그 자녀들 또한 안정된 직업을 갖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시골에 남은 부모를 부양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날까지 일을 계속해야 되는 노인들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여성개발원(1990)의 조사결과에서도 보고하고 있는데, 5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노후생계대책에 대하여 "농사 지으며"가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자식부양"(32%)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변화하는 사회의 농촌여성의 적응방안 모색**

#### **가.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적응방안 모색**

##### **첫째, 농촌고유의 생활문화 재창출**

농촌을 떠나는 주요한 이유는 도시와 농촌간의 경제적 격차와 함께 문화적인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전통문화의 발굴과 전수를 통한 농촌고유의 건전한 생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즉, 전통·향토음식, 생활용품 등의 내림솜씨 보유자를 발굴하여 사라져 가는 우리 고유의 맛을 그 지역 특산물로 개발함으로써 농가경제에 이바지 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도시와 농촌사이 문화의 격차를 줄이고, 인구의 도시유출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교육시설을 확충**

'97년 현재 읍당 보육시설의 수는 4.5개소가 있으며, 면의 경우는 9.6개소가 있으나, 도시지역 13,727개소로 약 90%가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농촌의 보육시설의 부족현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폐교위기에 놓여있는 교육기관을 학생들 방과후에 이용하여 농촌인력을 위한 재교육기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같은 문제는 분교를 폐교하였을 경우, 마을의 젊은층은 도시로 혹은 교육환경이 편리한 지역으로의 이주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농촌의 황폐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학교를 단순한 학습공간으로서가 아니라 마을주민들을 위한 공유센터로서 그리고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적·문화적 역할 증대를 위한 재교육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 **셋째,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를 확대**

여성농업인의 농업참여를 확대하고, 전문 여성농업인력을 육성한다. 즉, 농고 및 농대 출신의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 후계자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여성농업인을 위한 교육실태를 파악하여 영농교육 및 의식교육 등을 실시함으로써 농업여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농촌여성을 위한 교육 뿐만이 아닌 농가부부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부관계의 개선, 주민들과의 우호적인 인간관계,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 **넷째, 부부간의 폭력**

농촌여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남편의 폭력과 음주에 대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폭력남편이나 알코올 문제, 그리고 도박 등의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해결할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농촌여성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농촌여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여성문제 상담기관을 설치하고, 부부간의 폭력문제와 관련한 교육, 갈등해결 방법 및 성역할 교육 등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농촌여성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하여야 한다.

### **나. 소비·경제적 측면에서의 적응방안 모색**

#### **첫째, 농촌 여성의 정보화교육의 필요성**

전자·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정보활동으로서 컴퓨터 및 언론매체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보산업 및 컴퓨터 관련 업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농가생활도 예외가 아니어서 생활환경에서 무수한 정보 자극에 접하고 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대량생산과 대량판매가 직결되어 있는 시장구조하에서는 대량광고에 의한 대량전달이 절대적인 전제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판매촉진 관리수단으로써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즉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시장정보(Market Information)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우리의 후진적인 농산물유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간 전자직거래(EC) 등 신유통시스템의 도입이 검토되어야하며,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적극적 응용에 의해 가능하게 된다(정윤용, 1999).

**둘째, 농촌의 정보화현실 및 교육방법**

**① 농촌의 정보화 현실**

농촌의 PC보급률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같다.

<표 1> 농업인 PC보급률 (100농가당)

구 분	'94년	'95년	'96년	'97년
보급대수	9.4대	12.4대	16.3대	18.7대

\* 자료 : 농림부, "97농가경제조사속보", 1998.

그러나 정보매체와 정보 관련 기기에 관하여 조사한 최덕경(1998)의 연구에서는 PC보급률이 29.4%로 농림부조사결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약 60%가 장래 컴퓨터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C의 사용용도를 살펴보면, 교육이 3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업부기(36.4%), 농작업 일지(27.3%), 정보교환을 위한 PC통신(27.3%)등 농가경영에 유효한 항목에도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보다 나은 농가생활을 위하여 PC교육

뿐만 아니라 농가생활에서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들의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쉽고 편리하게 정보기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최근 농림부는 농민들의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하고, 1999년에는 올해 1만 5천명을 비롯 2004년까지 15만명에 달하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올해 100농가에 1억 5천만원을 투입,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도시에서는 최고속 통신망을 활용하고 있으나 농촌에는 디지털교환기가 없으므로 첨단 정보통신망을 활용할 수 없어 농민들이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하려면 인공위성을 이용해야 하는데, 관련장비를 설치하는 데만 50~70만원이 들어간다. 또 하루 평균 인터넷을 2시간정도 사용할 때 월 평균 7만원의 통신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반면 도시 소비자는 설치비 약 35만원, 월 평균(정액기준) 3만원 정도의 통신료만을 부담하면 된다. 따라서 농민들이 첨단 정보화 기술을 이용하는데 도시 소비자들보다 비싼 대가를 치뤄야 하는 셈이다(내일신문, 1999. 6. 16).

## ② 정보화 교육 방법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때는 정보화 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여성 농업인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고 나이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내용을 선정하며, 더 나아가 컴퓨터와 같은 기계적인 매체를 접촉하는데 심리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하여 여성 농업인의 교육참여의 기회를 높이고, 교육효과의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겠다. 이에 따라 농고출신 혹은 농대출신의 여성, 그리고 의욕이 있는 마을의 젊은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PC 활용방법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인터넷을 이용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 셋째, 농촌여성의 농촌경영 참여의 확대

우리나라와 같이 자가농 위주의 농업구조하에서는 경영주 혼자서 농가 주요 핵심과제와 농작업을 모두 훌륭히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일이므로 농가 주부로 하여금 작업의 일부 부담보다는 농업경영 사항을 전담토록 하는 것이

계획영농을 빨리 이룩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주부가 가계부를 기재하여 한 달의 지출 및 수입 상태를 파악하고 다음달의 지출계획을 꾸려 나가는 것과 같이 농가경영에 대한 기록과 분석, 자금의 지출계획, 시장분석 등의 사항을 주부가 전담토록 지도하므로써 경영주의 입장이나 주부의 입장에서든 바람직한 방향이라 기대된다. 결과적으로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도·농 교류 활성화시키고 해당년도 시범사업을 토대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지역 확대할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농업인 후계자 선발과정에 여성참여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겠다.

이를 위하여 경영 실무방법중 "벤치마킹"기법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벤치마킹 기법"이란 "벤치마킹(목표수준)에 의한 경영혁신 실천기법"을 줄인 용어로서, 현재의 경영상태와 수준을 분석·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와의 격차를 줄이도록 경영개선에 노력하면서 단계적으로 목표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벤치마킹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데 다른 사람의 장점을 배워 자신의 부족한 점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과정이다(정무남, 1999).

#### **넷째, 소비자교육의 실시**

농촌에서는 정보의 부족과 상품에 대한 지식이 도시 여성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상품구매행동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많은 피해를 경험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구매행동을 할 수 있도록 농촌여성을 위한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김주숙(1998)의 연구에서 40.6%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가정살림에 사용되는 지출권한을 남편이 전적으로 행사한다고 응답하여 앞으로는 소비자교육을 실시할 때 농촌여성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가계재무관리 및 소비자교육을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 **다섯번째, 한국 농촌가정의 수출전략적 상품개발**

경제가 발전할수록 하층 농민들의 탈농 및 빈농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본주의화의 심화는 경작규모의 확대, 수출농업의 중요성 증대, 거대기업농의 증가, 농식품 생산과정의 산업적 전유, 전통적 가족농 및 소농의 감소, 농민간 빈부격차의 심화 등 현상이 발생하였다. 즉 농식품 생산에서 전통적인 농민이나 농업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농기업 자본, 농생명 과학기술, 임노동 관계 등의 중요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모색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안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농을 중심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도입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특유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내수뿐만 아니라 수출의 활로도 개척하는 등 적극적인 생존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나머지 영세농은 영세농집단간의 결성을 통한 거대자본을 결성한 후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거대자본과도 경쟁할 수 있는 비교우위의 경쟁력을 구축하는 것이다.

#### 다. 여성·가족적 측면에서의 적응방안 모색

##### 첫째, 여성의 주체의식 개혁

오늘날 농촌여성은 "농가의 부녀자" 혹은 "주부"일 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농민여성"이며, 더 나아가서는 반독립적인 "농촌지역 사회의 시민"이라는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농가의 주부는 가족노동력으로 운영되는 농업의 주된 노동력 공급자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에게 부여된 전통적인 역할까지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가정한다면(김주숙, 1984), 농촌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와 같은 인습적인 사고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즉 가정으로부터 남녀평등의 사상을 심어주고 여성도 지역사회개발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을 깨우치는 가정교육이 필요하며, 학교교육에서도 전국민이 가정발전에 동참해야 할 당위성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여성들을 위한 사회교육을 강화하여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 둘째, 도시 자원봉사제도를 활용한 농가도우미 제도의 도입

여성 농업노동의 다중역할은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좋지 않다. 따라서 농번기에 농촌여성은 농사일에 매달리게 되고 그가 담당하여야 할 가사



노동과 육아, 자녀교육 등은 방치되어 바쁜 시기가 끝날 때까지는 포기하여야 하거나 아니면 농사일을 마친 저녁 시간이후의 일로 미루어야 할 것이므로 지친 몸을 휴식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농촌여성은 아이를 낳은지 3일에서 1일주일 사이에 일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아 건강상의 문제가 따른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모성보호차원에서 산후조리원 같은 여성농업인의 산후휴식 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농가도우미(Helper System) 도입방안을 연구하는 한편 농번기 등과 같이 바쁜 시기에 가사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근접 도시지역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인력은행 설치, 수요·공급 희망자 현황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영아기 자녀양육을 위한 부담을 덜기 위해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이때 보육도우미들은 젊은 사람이 아닌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면서도 자녀양육의 경험이 있는 활동적인 젊은 노인으로 한다. 이상의 방법은 농촌여성에게는 안심하고 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안정감을 안겨줄 것이며, 노인들에게는 손자녀와 며느리에게 뿐만 아니라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셋째, 농촌여성의 여가시간 확대 및 활용방안**

남자의 농업노동은 기계화로 인하여 감소하고 있으나 여성의 농업노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인 다종의 역할로 인한 농촌여성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었다. 그러므로 이미 유명무실화 되어버린 마을회관과 여성회관 등을 활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활동 가능한 여가생활을 영위함으로써 정신적 평온, 기분전환, 생활리듬의 변화, 대인관계 확대 및 건강유지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생활환경 개선 및 지적 창의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 **넷째, 가사노동의 기계화와 마을 공동체 조직**

농번기와 같이 일손이 모자라는 경우 농촌여성은 농사노동이 끝난 다음 집으로 돌아가 식사준비 등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은 가족의 규모나 크기가 축소되었고 동시에 가사노동이

기계화되었기 때문에 가사노동의 양이 축소된 점을 고려하여, 마을 여성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식사를 해결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즉 돌아가면서 몇몇의 여성이 식사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일을 끝마친 후 준비된 식사를 한다면 농가생산성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농촌여성의 심리적 부담감은 감소하고, 주민들과의 결속력은 증대될 것이다.

전남 영광군에 위치한 "영산원불교대학"안에 위치한 종교공동체 조직은 이스라엘의 키부츠와 유사한 형태로서 원내에서 모두 기거하면서 식사는 공동 취사장을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점이 원내의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만들었다.

#### 다섯째, 바람직한 노후생활준비

농촌가족에서 미혼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비교적 낮지만 기혼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은 더욱 낮다는 한국여성개발원(1993)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미래의 노후설계를 위해서는 자녀와 동거하는 방안보다 국민연금이나 노인연금 혹은 적금, 보험 등 자신의 미래를 위한 재정적인 준비를 중년기부터라도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 강은주(1998), 경제성장에 따른 혼례문화와 혼례비용의 변화, 한양대 석사논문.
- 김경미·전혜경·정금주(1999), 여성농업인의 지식·정보현황과 금후방향, 농업의 지식산업화를 위한 정보기술이용, 한국농업정보과학회. p. 21-36.
- 김인철·김태현·김홍주(1993), 한국농민의 불안과 희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주숙(1981), 한국 농촌여성연구, 카톨릭 농촌 여성회 2집.
- \_\_\_\_\_(1982), 농촌여성의 농업생산 참여의 실태와 문제점, 농촌경제 5(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_\_\_\_\_(1983), 한국의 농촌여성, 여성학.
- \_\_\_\_\_(1984), 한국의 농촌발전을 위한 논고, 여성연구 2(3), p. 43-73.
- \_\_\_\_\_(1984), 한국의 농촌여성 발전을 위한 논고, 여성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_\_\_\_\_(1986), 농촌여성과 일, 한국여성과 일.

박옥임 : 농촌사회의 변화와 농촌여성의 적응방안

- \_\_\_\_\_(1987), 농촌여성연구의 방향과 내용, 여성학논집 4집.
- \_\_\_\_\_(1988), 여성농민의 지위와 역할,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_\_\_\_\_(1990), 농업생산구조의 변화와 가족, 여성한국사회연구회.
- \_\_\_\_\_(1994), 한국농촌의 여성과 가족, 한울아카데미.
- \_\_\_\_\_(1998), 한국농촌사회의 구조변화와 여성의 역할, 대산논총, p.531-554.
- 김창호(1990), 농촌여성대상의 사회교육내용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 민말순(1994), 농촌사회 변동과 농촌개발 방향, 농촌사회학 7, p. 141-165.
- 박옥임(1991), 농촌발전을 위한 농촌가정의 생활 장애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3), p. 33-48.
- 이영미·김주희(1991), 한국 농촌여성의 경제적 역할 변화에 대한 사례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3), p. 247-261.
- 이순전(1977), 농촌여성의사회참여와 그 관계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 정무남(1999), 농업경영의 이론과 실제, 농촌생활연구소, p. 177-194.
- 정윤용(1999), 농업경영 정보의 내용과 활용방법, 농촌생활연구소, p.221-242.
- 조성철(1999), "떠나란 말인가" 반발 확산, 한국교원신문, 6월 21일.
- 조옥라(1990), 도시빈민가족과 농촌영세빈농가족의 비교, 한국여성사회연구, 까치.
- 최덕경(1998), 농가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보고 II; 경영형태별 농가주부의 여가활동과 생활의 정보화,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9(2), p.63-78.
- 한국여성개발원(1990), 우리농촌과 여성, 한국여성개발원.